



사랑의 일기 큰잔치 시상식 개최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11월 24일 서울역 사박물관에서 '제18회 사랑의 일기 큰잔치 시상식'을 개최하여 모범학생과 지도교사, 단체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권 위원장은 "일기 쓰기를 통해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자살보도 선정성 자제 당부



권성 위원장은 12월 13일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 정책심포지엄에 앞서 뉴스픽과 인터뷰를 가졌다. 권 위원장은 "자살은 흥미 있는 기사거리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흥미위주의 자살보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언론에서 자살을 더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부·울·경 언론학술상 연구과제상 수상



한혜경 위원(부산중재부,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1월 29일 부산울산경남 언론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부산·울산·경남 언론학술상 연구과제 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지역뉴스 프로그램 시청패턴에 관한 연구'로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



정교순 위원(대전중재부, 변호사)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는 12월 3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빈곤 및 방임 아동의 후원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정 위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



신승현 위원(충북중재부, 변호사)은 12월 10일 열린 충북지방변호사회 임시총회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 위원은 제23대 회장으로 2013년 1월 28일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되며, 현재 법무법인 청풍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독거노인·장애인가정 위해 김치와 쌀 전달



고규정 위원(경남중재부,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은 12월 6일 창원지방법원 봉사동아리인 '누리사랑회' 회장으로서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정을 위해 김장김치 50상자와 쌀 50포대를 전달했다. 고 위원은 "법원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동절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